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열정과 감동

우리의 꼭꼭 씹어 먹기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말에 대해 함께 공부해 나가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는 <흥동하기 쉬운 우리말>을 공부해 보기로 해요. 발음은 비슷해도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잘 서지 않네요. 청아는 얼른 택시 운전수에게 "급질급질"하고 외쳤어요. 그래도 서지 않아요. 이번엔 언니가 "아저씨, 급질급질"하니 택시가 서는 거예요. 아마도 아저씨들이 평소 "따블 따블"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었나 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청아는 웃었어요. 갑질이 급질보다 많은데...

- 갑질**-어떤 수량의 두배 (예: 100은 50의 갑질이다)
- 급질**-어떤 수량의 세배 이상 (예: 이 은혜는 나중에 몇 갑질로 갚겠다)

- 장사**-물건을 파는 일 (예: 철수 아버지는 과일 장사를 하신다)
- 장수**-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 (예: 철수 아버지는 과일 장수이시다)

- 몹쓸**-고약한 (예: 우리 할머니는 몹쓸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 몹쓸**-아무 쓸모 없는 (예: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몹쓸 물건이라고 하셨다)

안명옥(시인) · 고양이고 문예창작반 강사

눈술의 자진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과대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배경지식이예요. 아는 것이 많아야 눈술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지식 '충전'에는 독서가 최고죠. 우선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책부터 읽으며 책에 흥미를 느껴보세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의 낭만주의의 물결이 고조되었던 18세기말을 대표하는 작품이예요. 괴테가 1772년 5월 베를린에 있는 고등법원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이 소설의 모태를 이루는 사물 로테와 그 약혼자 케스네르와, 유부녀 헤르트 부인에게 사랑을 하다가 실연을 당하여 권총 자살한 에루살렘을 알게 되죠. 그 실제적인 경험을 소재로 쓴 소설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괴테가 25세 때 쓴 이 소설은 금단의 사랑과 사랑의 열정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금기되는 사랑은 그만큼 더 격렬한 걸까요?

이성이 압도하는 현대인들에게 감성이 압도하는 베르테르의 사랑은 그래서 더 읽혀지는 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하인도 장벽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고 미친 사람 역시 로테를 사랑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미쳐버린 것이죠. 이 둘의 인물

또한 베르테르의 또 다른 인물화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빨리 작품을 읽고 싶어서지요? 어느 책이든 자신이 직접 읽어보는 것이 최고지요. 아직 읽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잠깐 즐거움을 소개 할게요.

고향을 떠나 시골에 와 살던 베르테르는 정열적이고 다정다감한 감상적인 청년이였죠. 그가 어느 무도회에서 로테를 만나며 사랑에 빠지죠. 그러나 로테에게는 출장 중이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오게 되죠. 베르테르의 눈에 그 청년은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처럼 느껴지고 베르테르는 로테에

낭만주의 고조 시기 작품 당시 사회제도 잘 보여줘

대한 사모의 정에 고민하다가 떠날 결심을 하죠. 어느 공사관에 근무하나 관료주의와 고루한 계급의식에 견디지 못하게 되죠. 마침 C백작 집의 파티에서 공사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베르테르는 곧 퇴직하고 로테를 찾아가지만 이미 로테는 결혼을 했지요.

로테가 베르테르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자기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자기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울 만한, 정숙한 태도를 잃는 일은 없었지요. 그러나 베르테르는 로테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격정을 자기 스스로 막을 수 없어 또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 속에서 로테의 그림자를 지워버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죽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로테에게 번역시 오시안을 낭독했을 때 두 사람은 웅숭웃치는 정열을 역할 수 없어서 서로 꼭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지요. 로테는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이것뿐이예요. 다시 만나서는 안돼요. 용서하세요."라고 고통에 가득 찬 이별의 말을 남겨놓고 가버리죠. 다음날 베르테르는 여행을 하겠으니 권총을 빌려 달라고 알베르트에게 사람을 보내죠. 로테가 먼지를 뒤야 건네준 총을 심부를 갖던 소년에게 받으며 "당신 손에서 죽음을 받아가자기를 원했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늘 있던 콘색 상의에 노란 자켓을 입은 채 1772년 12월 23일 밤 베르테르는 방아쇠를 당겼지요.

이 정열적인 연애소설은 나폴레옹1세도 전장에 가지고 가서 애독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 소설이 나온 뒤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 권총 자살이 늘어나고 유럽에는 '올백 머리'에 콘색 윗도리에 노란 셔츠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베르테르풍의 감정과 스타일이 유행되기 까지 했다고 하죠. 내부 세계가 풍부한 괴테의 눈에는 사회제도란 것이 속인들이 몸을 지키기 위한 제방처럼 비쳤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에서 사랑이 무모하다고 느껴지나요? 열정적인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죽음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느껴보는 소설이예요.

안명옥(시인) · 고양이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컴퓨터 오락 공을 수가 없어.

Q: 저는 중 1남학생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열심히 공부하려는데 오락 때문에 전혀 집중이 안되요. 컴퓨터가 없으면 허전하고 미치겠어요. (ID:pruna0135)

A: 컴퓨터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어요. 컴퓨터를 보기가 하면 저절로 손이 간다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쳐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입니다. '나를 스스로 돕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성격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일단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컴퓨터와의 정열을요. 자신의 결심을 지속적으로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획을 세워주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은 컴퓨터 선을 뽑아 놓고 자낸다면, 시험기간 동안 컴퓨터를 창고에 넣어둔다면,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하겠다고 가족에게 다짐을 하고 실천해 보는 것 등도 방법이겠지요.
 3. 그 계획을 잘 수행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줄 보상의 내용도 계획해보세요. 보상을 적절히 주는 것이 계획을 지키려는 마음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답니다.
- 또한 자신의 계획과 수행 평가를 위해 표를 만들어서 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4. 자신이 왜 오락에 빠지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자신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서 그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오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오락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등 자신만의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해결이 더 수월해 집니다.

(한미음 상담연구소)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역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 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해 불이 호위하시며 세계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가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평안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열려있다면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주는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행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면, 그 해를 보려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몸살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령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흥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 ◎ 소재: 팔 패 - 고급 무늬목재
-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 ◎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20만원

생활속의 수행, 수행속의 생활

부산법기불교대학 제 10기 모집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행방법, 수행단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부산법기불교대학 제 10기 과정이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 개강: (야간반)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저녁 07:00-09:00)
- 접수 및 문의: 부산법기선원 (051-516-9104) www.bubkisa.or.kr
- (주간반) 2007년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00-12:00)
- 수강료: 총 80,000원 (교재비 포함)

차레	강 의 내 용	비 고
1강	불교란 무엇인가? 예불의식, 불자예절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 무기심과 번뇌심	자기소개
3강	수행방법 - 관법(결단관, 호흡관, 설관)과 염법	없는 자세와 높은 자세
4강	불교교리 -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연기법	수행문답
5강	신행-요차수행	사찰의 장엄
6강	초발심자경문	호흡점검
7강	심매와 심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도반의 수행담, 지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선배의 수행경험담	호흡점검, 반지식호흡
9강	수행의 단계-수다원(사다원,아나함,아라한)	좌선/ 행선, 숫자 세는법
10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상기의 극복(엘로디)	이근관, 안근관
11강	봉사활동	
12강	보현행원품-끝없는 대승보살의 서원	멜로디연습
13강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비교분석-소승, 대승, 최상승	설문조사, 발원
14강	수료식, 선지식법문	

* 주야간 중복수강도 가능합니다. * 서울법기불교대학 일정은 서울선원(02-854-184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선원 찾아오실길: 지하철 남산동역 7번출구 → 육교지나 → 20m 직진 → 왼쪽 청룡빌딩 4층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